

# 라부가라



## [해제]

<나부가라>는 전적(典籍) 형태의 필사본으로 게으른 부녀자를 선도하기 위해 지은 교훈가사 또는 내방가사이다. 줄글의 연속된 형태로 필사하고 있으나 글씨상태가 단정치 못하다. 이 전적에는 <효행록이라>, <오륜가> 등 3편의 작품이 실려 있으며, 이 중 <나부가라>는 11면에 걸쳐 있다.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나부가라>는 다양한 이본이 존재하고 있으며, 부인의 부도(婦道)를 잘 지켜 시부모께 효행하라는 교훈을 말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앞에서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로부터 시작하여 출가하여 게을러진 여인의 예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부녀자가 지켜야 할 덕목과 작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은 부녀자가 지켜야 할 덕목으로 근검과 근면을 들고 있다. 교훈적인 가사가 그렇듯이 계몽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풍속과 관련하여 여성의 흥미로운 표현은 다소 해학적인 면도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봉건시대의 사고방식이 경직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스스로 노출하고 있는 점은 당대 여성들이 부조리한 사회 현실 속에서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애환이 작품 속에서 반영하고 있다.

## [원문]

압희 치필을 잠간 머물고  
 등하의 아미를 숙이고 이갓치  
 용열한 말을 명심불망 하면  
 일후 출가하야 구고와 군조  
 섬기논 날의 약석지어이 될지어라

## 라부가라

게우른 계집을 두고 한말이라  
 어와 세상 라부임네 들어보소  
 여주가 되어느셔 제할직분 모랄소나  
 준준흔 버러지와 날고기논 금슈라도  
 날곳시면 운동하야 먹을것슬 일숨거던  
 하물며 스람이야 이목구비 갓초잇고  
 슈족이 성성하니 무숨일을 못할소나  
 송강오상 법을밧아 원갓헝실 빅워니고  
 침션방적 일을빅와 밤낫스로 길삼하야  
 입을것과 먹을일을 일숨으니 이러하무로  
 천하 스람이다 각각직분 이잇스니  
 구중궁궐 놉히안조 스희만물 그심하기  
 임군의 직분이요 일인지하 만인지상  
 의니음양 슈스시는 상공의 직분이요  
 디영문 선화당의 각읍슈령 포명쓰기  
 팔도감스 직분이요 킷니분우 왕명밧어  
 청정의민 선정비는 각읍슈령 지분이요  
 스셔삼경 외와닉여 입신양명 죠흔영화

선비의 직분이요 손오의 병서 비워니여  
천명만마 지휘하기 무신의 직분이요  
만경창파 일엽성의 고기잡아 장수하기  
어부의 직분이요 거릿횡인 영접하야  
슬흥정 음식팔기 쥬막장이 직분이요  
오월유월 쇠약베틀 논을갈고 밭슬갈기  
농부의 직분이요 산유화 진노리  
남북산의 남우하기 초군의 직분이요  
청누화촉 고흔티도 호탕남조 쳐결하기  
기침년의 직이요 소고덩덩 두다리며  
훈푼달나 손별이 깃담년의 직분이요  
곽가전영 소의쥐고 화조구슬 겨촉하기  
풍헌약장 직분이요 조와먹줄 규구쫓쳐  
천간화각 지어내기 덕목의 직분이요  
하물며 스부부인 훈직분 더욱만타  
칠팔세 어린덩씨에 친정비온 횡실  
계초명의 세슈하고 부모의게 효성하고  
제스씨 직계하고 진견병절 작만하며  
침션방적 일을손아 의복은 식비와  
닌닌 닉측편 열녀전을 시시로 본을밧아  
규문밧고 나지말며 쳐조횡실 닥거다  
이십세에 출가후의 복스범절 더욱만타  
식부모게 공경하여 훈정신경 의치말며  
봉제스 접빈직도 치성하여 흐려니와  
단정훈 몸티도와 온순훈 낫빗츠로  
가장을 공경하며 식동심도 화목하며  
어룬의 수증삿티 울흔일도 발명말며  
남의말을 훗듯고 지레나셔 실체말며  
남노녀비 부리기도 은위로 쥬장하고  
횡도거지 번복체모 스스이 조심호소  
이러한 원갓예법 구비케 못할긴딘  
아모쇠 미움흔들 길삼조츠 못할소나  
천상의 직녀성도 괴스야월 뵈를싸고  
왕후명부 귀인네도 직임조순 힘을쓰니  
이런고로 부이은 예적붓터 길스느 흐느니  
옛신롱씨 부인셔릉씨도 잠롱을 시작호스  
그후의 문와의 후비도 갈람시를  
지으시고 문복의 모논티우 집부인되야

비단짜기 힘써하고 빈풍칠월 처상녀는  
위공조상 하여니고 규규갈구 봉상녀는  
호인 복을지어 너어거던 가소롭다  
금세부인 이디지 게우룬가 쳐은의  
의훈할제 일등이라 운운커날 눈을팔고  
밧슬팔어 혼슈범절 작만하여 녹레로  
다려온이 열고기은 근스하다 식부모의  
거동보소 며느리 스랑 유달느셔  
어엽부다 니며느리 상할세라 니며느리  
병들세라 니며느리 신혼정성 그만두고  
잠잘자라 당부하니 그모로논 식부인이  
부모쫓슬 전혀몰느 하로잇틀 점점달느  
게우르기 숭상하니 밧조흔 기살구라  
이딴도록 소기논가  
얼골이느 조흐야고 치장하기 일숨아겨  
밧분일 그만두고 머리빈고 분발으고 출입한다  
몸골닐제 아홉목 긴치마를 기리딴로 짜의쓸고  
오촌딴 육촌딴의 일업시 왕니하네  
눈치도 바이업다 남웃년출 모로던고  
일리저리 소일하고 어니여가 치산할가  
세간살이 흥년체로 약간곡식 떨어니여  
고기장스 실과장스 웨느소리 나넴되로  
쥬군군 박귀먹고 메쥬소금 무겨두니  
김장하기 쉬을소냐 조격씨가 당하머은  
종션불너 분부하되 압집의가 지령쑤고  
뒤집의 침치어더 후씩은당 전혀아코  
당헌되로 다먹년라 도포창의 지으라면  
치산하기 밧분듯기 큰딴의 조근아씨  
조근집의 족하쌀을 스면으로 요청하여  
이것저것 맛기 놀인스느 잇는듯시  
두지단지 썩썩글기 종년불 허너말이  
슈점범벅 밧비하라 여러손의 지은의복  
깃다림 방불할가  
그럼마 제가흔듯 가장의게 솜씨자랑  
일이저리 허비하고 남은양식 잇슬소냐  
제사씩 당하여도 뵈쌀하되 어딴수며  
스랑의 손임와도 무엇스로 디접하리  
익수지 가장원망 머리글고 흥년말이

방도업는 이양반아 변통성도 바이업소  
환조밋슬 계오니면  
제복으로 칭긋듯시 이은식 저은식을  
만이잔 총복하고 남은음식 앓것다가  
남알세라 각슈하야 오시육시 다먹으니  
식상하야 늑논방귀 우격으로 참을소냐  
칠팔월의 차려노흔 저보틀이 셋달가지  
그저잇고 초심의 김던보션 그뭉가지  
뒤치이네 어라아히 우논소리 젓먹인다 칭탁하고  
스늑스월 디나지에 네폭중의 펼쳐노코  
자논아히 젓몰이고 히가논줄 모를적의  
식부모의 깃침소리 삼작늘늑 이어안져  
눈곱도 씻적이며 헛흔머티 다시씻고  
잠잔흔적 순기라고 반울글룻 만지논듯  
션하품을 못이괴여 지지기도 부득이며  
손으로 무릅집고 강작하여 이러늑니  
치만복의 아히쑹은 여기저기 발여잇고  
망구갓흔 방구역의 늑은식도 고이하다  
이웃집 초상나면 제히롭다 일안하고  
압집의 뵈틀소리 인병의 가마귀소리라  
용심하여 흥논말이 저리하면 부조되늑  
제팔조 곳조하면 오논복이 어디가리  
남의집 제스음식 누은자리 밧어먹고  
귀경할것 잇다하면 남면 정질기고  
아히션다 조세하고 신것찾기 쇄병이요  
물네조리 조을기와 양지썸의 이잡기와  
무당보고 쌀푸기를 어이그리 힘쓰는  
식부모의 어진마음 종용이 경계하면  
저그른줄 저모로고 종조티면 흥논말이  
성품본디 그런것슬 지금엇지 곳치릿가  
그가장 흑시듯고 한살조곰 꾸지스면  
이불덥고 들어누어 스흘나흘 안이일고  
종곰하면 발싹하고 훈티조면 히히하네  
잘은언문 잘하년체 풍운전 속향전을  
무릅우회 언저두고 남보라고 흥흥이며  
그간의안 된후투기 씨모로고 강시암하비  
어와세상 부인임네 닑말슴을 경계하와  
부디부디 명심하며 푹산스의 공경하고

쪼심하야 현절부인 되야셔라

오륜가

부조 유친은 칙령의 근보이라  
부심모혹 하오시니 김흔은혜 감조 하면  
호천망국 헝리로다 이런고로 순임구는  
역산의 밧슬갈어 부모를 봉양하고  
조로는 칙니에 부미하여 부모를 효양하고  
노리조는 칠십의 양친을 뉘겨  
오식의 복을입고 식식기를 희롱하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하고 왕상은  
부모를 봉양하다가 겨울의 이어를  
싱각 하신디 명을듯고 강의가겨  
어름을 썩치고 하날게 축슈하니  
이어가 스스로 썩어나고 뉘종은  
아비 병들어서 겨울의 죽숙을 구하거날  
썩<sup>썩</sup>◆ 죽순은 어디가 어드리요  
뉘종이 민망하여 말하되 죽순엇지  
못하면 죽고 도라오지 악이헝리리하고  
죽전의 가서 뒤를 붓들고 우니  
의외에 죽순이 나거날 썩<sup>썩</sup> 거 부병을 구안하고  
화향은 어려겨 하절을 당하여  
부모의 조리를 붓치로 붓치고  
육적을 어려서 원술이 유조를 쥬거날  
품의감츨어 부모게 드리니이  
스람은 어린 아히라도 효심 이갓거던  
하물며 지각잇는 스람이야 부모  
공겨하여 섬기미 엇더헝리오  
부모를 섬기믹 차고더우물 못고  
빅불음 곱푸물 못고 정성으로 공경하며  
쪼곰도 피치 못하며 지극히 봉양 할지로디

[현대역]

채필(彩筆)을 잠깐 머물고  
 등하(燈下)에 아미(蛾眉)123를 숙이고 이같이  
 용렬(庸劣)124한 말을 명심불망(銘心不忘)125하면  
 일후 출가한 후에 구고(舅姑)와 군자(君子) 섬기는 날에  
 약석지어(藥石之語)126이 될지어라

라부가라

계으른 계집을 두고 한말이라  
 어와 세상 나부1님네 들어보소  
 여자가 되어나서 제할 직분2 모를소나  
 준준한3 버러지4와 날고기는 금수5라도  
 날 곧 새면 운동하여 먹을 것을 일삼거던  
 하물며 사람이야 이목구비6 갖춰 있고  
 수족7이 성성하니8 무슨 일을 못할소나  
 삼강9오상10 법을 받아 온갖 행실 배워내고  
 침선방적11 일을 배워 밤낮으로 길쌈12하여  
 입을 것과 먹을 일을 일삼으니 이러하므로  
 천하 사람이 다 각각 직분 있었으니  
 구중궁궐13 높이 앉아 사해만민14 근심하기  
 임금의 직분이요 일인지하 만인지상  
 조음양 순수시15는 상공16의 직분이요  
 대영문 선화당17의 각읍 수령 포폄18쓰기  
 팔도감사 직분이요 백리분우 왕명받아  
 청덕애민19 선정비20는 각읍 수령 직분이요  
 사서삼경21 외워내어 입신양명22 줄은 영화23  
 선비의 직분이요 손오24의 병서 배워내어  
 천병만마25 지휘하기 무신의 직분이요  
 만경창파26 일엽편주27 고기잡아 장사하기  
 어부의 직분이요 거리행인 영접하여  
 술흥정 음식팔기 주막장이 직분이요  
 오월유월 퇴약별에 논을 갈고 밭을 갈기  
 농부의 직분이요 산유화 진노래  
 남북산의 나무하기 초군28의 직분이요  
 청루화촉29 고운 태도 호탕30남자 체결31하기  
 기생년의 직분이요 소고32 동동 두드리며  
 한푼달라 손 벌이기 깃담년의 직분이요  
 관가전령33 손에 쥐고 환자34 구실 재촉하기

풍헌약정35 직분이요 자와 먹줄 규구36쫘아  
천간화각37 지어내기 대목38의 직분이요  
하물며 사부부인39 하는 직분 더욱 많다  
칠팔세 어릴 때에 친정 배운 행실  
계초명40의 세수하고 부모에게 효성하고  
제사 때 재계하고 진견병절 장만하며  
침선방적 일을 삼아 의복의식 배워내니  
내칙편 열녀전을 시시로 본을 받아  
규문41밖에 나지 말며 처자행실 닦아다가  
이십세에 출가 후에 백사범절 더욱 많다  
시부모께 공경하며 혼정신성42 폐치 말며  
봉제사43 접빈객44도 치성45하여 하려니와  
단정한 몸태도와 온순한 낮빛으로  
가장을 공경하며 시동생도 화목하며  
어른의 꾸중끝에 옳은 일도 발명46말며  
남의 말을 헛듣고 지레나서 실체47말며  
남노여비48 부리기도 온의49로 주장하고  
행동거지 범백체모50 사사이51 조심하소  
이러한 온갖 예법 구비케 못할진덴  
아무리 미욱한들 길쌈조차 못할소냐  
천상의 직녀성도 견우의 베를 짜고  
왕후명부52 귀인네도 직임조순53 힘을 쓰니  
이런고로 부인은 옛적부터 길쌈 하나니  
옛신농씨 부인 서릉씨도 잠농54을 시작하사  
그후의 문왕의 후비도 갈담시55를  
지으시고 문백의 어머니는 태후집 부인되어  
비단짜기 힘써하고 빈풍칠월56 채상녀는  
위공자상57 하여내고 규규갈구58 봉상녀는  
호인복59을 지어내었거든  
가소롭다 금세부인 이다지 게으른가  
처음에 의흔60할제 일등이라 운운커늘  
논을 팔고 밭을 팔어 혼수범절 장만하여  
육례61로 데려오니 얼굴은 근사하다  
시부모의 거동보소 며느리사랑 유달라서  
어여쁘다 내며느리 상할세라 내며느리  
병들세라 내며느리  
신혼정성 그만두고 잠잘자라 당부하니  
그 모르는 새부인이 부모뜻을 전혀 몰라



하루이틀 점점달라누 게으르기 송상하니  
빛좋은 개살구라 이대도록 속이는가  
얼굴이나 좋다고 치장하기 일삼아서  
바쁜 일 그만두고 머리빗고 분바르고 출입한다  
몸꿀벌제 아홉쪽 긴치마를 가리대로 땅에 끌고  
오촌댁 육촌댁에 일없이 왕래하네  
눈치도 바이 없다 남웃는 줄 모르던고  
이리저리 소일하고 어느 여가62 치산63할까  
세간살이 하던 체로 약간곡식 떨어내어  
고기장사 실과장사 오는 소리 나는대로  
주군군 바꿔먹고 메주소금 묵혀두니  
김장하기 쉬울소냐 조석64 때가 당하면  
종선불러 분부하되 앞집에 가 지량65꾸고  
뒷집의 김치얻어 후때 요량66 전혀 앓고  
당한대로 다먹더라 도포창의67 지으려면  
치산하기 바쁜듯이 큰댁의 작은아씨  
작은집의 조카딸을 사면으로 요청하여  
이것저것 맡겨놓고 인사나 있는듯이  
두지단지 싹싹꿀기 종년불러 하는말이  
수점범벅 바빠하라 여러손의 지은 의복  
깃다림 방불할까  
그나마 제가 한듯 가장에게 숨씨자랑  
이리저리 허비하고 남은 양식 있을소냐  
제사 때 당하여도 멍쌀 한 되 어디 꾸며  
사랑에 손님와도 무엇으로 대접하리  
애꿎게 가장 원망 머리 끌고 하는 말이  
방도68없는 이 양반아 변통성69도 바이 없소  
환자 빗슬 계오내면  
제복으로 생긴듯이 이 음식 저 음식을  
많이도 총복70하고 남은 음식 아꼈다가  
남 알세라 간수하여 오시육시 다먹으니  
식상하여 나는 방귀 위격71으로 참을소냐  
칠팔월의 차려 놓은 저 베틀이 선달까지 그제 있고  
초생의 김던 버선 그음까지 뒤치이네  
어라 아이 우는 소리 젓먹인다 칭탁72하고  
삼사월 대낮에 네 폭중에 펼쳐놓고  
자는 아이 젓물리고 해가는 줄 모를 적에  
시부모의 기침소리 깜짝 놀라 일어 앉어

눈썹도 뜯적이며73 흘은 머리 다시 꽃고  
잠잔 흔적 숨기려고 바늘그릇 만지는 듯  
선 하품을 못이기어 기재개도 부득이며  
손으로 무릎 짚고 강작74하여 일어나니  
치마폭의 아이 똥은 여기저기 벌여있고  
마구75같은 방구석에 냄새도 고약하다  
이웃집 초상나면 제 해롭다 일 안하고  
앞집의 베틀소리 인병의 까마귀 소리라  
용심76하여 하는 말이 저리하면 부자되나  
제 팔자 곧 좋으면 오는 복이 어디 가리  
남의 집 제사음식 누운 자리 받아먹고  
구경할 것 있다하면 남보다 정 질기고  
아이 선다 자세하고 신것 찾기 께병이요  
물네 자리 줄기와 양지쪽에 이잡기와  
무당보고 쌀풀기를 어이그리 힘쓰나  
시부모의 어진 마음 조용히 경계하면  
저 그런줄 저 모르고 종용하며 하는 말이  
성품 본디 그런 것을 지금 어찌 고치리까  
그 가장 흑시 듣고 한말 조금 꾸짖으면  
이불덮고 들어누워 사흘나흘 아니 일어나고  
조금하면 발끈하고 한태자면 희희하네  
다른 언문 잘하는체 풍운전 속향전을  
무릎 위에 얹어두고 남보라고 흥흥이며  
그간의 안된후에 투기77 때모르고 강샘함이  
어와세상 부인님네 내 말씀을 경계하여  
부디부디 명심하며 백산사에 공경하고  
조심하여 현철78부인 되어서라

오륜가

부자유친1은 백행의 근본이라  
부생모욕2 하오시니 깊은 은혜 갚자하면  
호천망극3 하리로다 이런고로 순임금4은  
역산5의 발을 갈아 부모를 봉양하고  
자로6는 백리에 부미7하여 부모를 효양하고  
노래자8는 칠십의 양친을 모셔  
오색의복을 입고 새색시를 희롱하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왕상9은 부모를 봉양하다가

겨울의 잉어를 생각하신데  
명을 듣고 강에 가서  
얼음을 깨고 하늘에 축수10하니  
잉어가 스스로 뛰어나오고  
맹종11은 어미 병들어서 겨울의 죽순을 구하거늘  
때아닌 죽순은 어디가 얻으리오  
맹종이 민망하여 말하되  
죽순 얻지 못하면 죽고 돌아오지 아니하리 하고  
대나무밭에 가서 대를 붙들고 우니  
의외에 죽순이 나거늘  
꺾어서 모친병을 구완12하고  
황항13은 어려서 하절14을 당하여  
부모의 자리를 부채로 부치고  
육적15은 어려서 원술이 유자16를 주거늘  
품에 감추어 부모께 드렸으니  
사람은 어린 아이라도 효심이 같거든  
하물며 지각있는 사람이야  
부모 공경하여 섬김이 어떠하리오  
부모를 섬기며 차고 더움을 묻고  
배불음 고품을 묻고 정성으로 공경하며  
조금도 피치 못하며 지극히 봉양 할지로되

[각주]

- 1) 나부(懶婦) : 게으른 며느리. 난부(懶婦)와 같은 말.
- 2) 직분(職分) : 마땅히 하여야 할 본분.
- 3) 준준한 : 어리석고 미련한.
- 4) 버러지 : 벌레.
- 5) 금수(禽獸) : 짐승.
- 6) 이목구비(耳目口鼻) : 귀·눈·입·코를 중심으로 한 얼굴의 생김새.
- 123) 아미(蛾眉) : 누에나방의 눈썹이라는 뜻으로, 가늘고 길게 굽어진 아름다운 눈썹을 이르는 말.
- 124) 용렬(庸劣) :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함.
- 125) 명심불망(銘心不忘) : 마음에 깊이 새겨 두어 오래오래 잊지 아니함.
- 126) 약석(藥石) : 여러가지 약 또는 치료가 되는 말을 뜻함.
- 7) 수족(手足) : 손발.
- 8) 성성하니 : 멀쩡하니'의 뜻인 듯.
- 9) 삼강(三綱) : 유교의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을 이룸.
- 10) 오상(五常) :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다섯 가지 덕.
- 11) 침선방적(針線紡績) : 바느질과 길쌈.
- 12) 길쌈 :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13) 구중궁궐(九重宮闕) :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이라는 뜻. 임금이 있는 대궐 안을 이르는 말.
- 14) 사해만민(四海萬民) : 온 세상의 모든 백성.
- 15)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 조음양(助陰陽) 순사시(順四時) : 임금의 아래에 있는 사람과 만사람의 위에 있는 사람이 음양의 원리를 도와 사계절에 순응함.
- 16) 상공(相公) : 재상(宰相)'을 높이 부르는 말.
- 17) 선화당(宣化堂) : 각 도의 관찰사가 사무를 보던 정당(正堂).
- 18) 포평(褒貶) :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여 결정함.
- 19) 청덕애민(淸德愛民) : 청렴하고 고결한 덕행으로 백성을 사랑함.
- 20) 선정비(善政碑) : 백성을 어질게 다스린 벼슬아치를 표창하고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
- 21) 사서삼경(四書三經) : 사서와 삼경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네 경전과 『시경』, 『서경』, 『주역』의 세 경서를 이룸.
- 22) 입신양명(立身揚名) :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
- 23) 영화(榮華) :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
- 24) 손오(孫吳) :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병법가인 손무(孫武)와 오기(吳起)를 아울러 이르는 말.
- 25) 천병만마(千兵萬馬) : 천 명의 군사와 만 마리의 군마라는 뜻으로, 아주 많은 수의 군사와 군마를 이르는 말.
- 26) 만경창파(萬頃蒼波) :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
- 27) 일엽편주(一葉片舟) : 한 척의 조그마한 배.
- 28) 초군(樵軍) : 나무꾼.
- 29) 청루화촉(靑樓華燭) : 유흥가의 화려한 불빛.

- 30) 호탕(豪宕) : 호기롭고 걸걸함.
- 31) 체결(締結) : 엮어서 맺음.
- 32) 소고(小鼓) : 작은 북.
- 33) 관가전령(官家傳令) : 관에서 명령을 전하는 사람.
- 34) 환자(還子) : 환곡(還穀). 곡식을 사창(社倉)에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 35) 풍헌약정(風憲約正) : 조선시대 향소직의 하나. 향약단체의 임원.
- 36) 규구(規矩) : 목수가 쓰는 그림자, 자, 먹줄통 등.
- 37) 천간화각(千間畫閣) : 천칸이 넘는 크고 호화로운 건물.
- 38) 대목(大木) : 집짓는 목수.
- 39) 사부부인(士夫夫人) : 사대부 집안의 부인.
- 40) 계초명(鷄初鳴) : 닭이 처음 우는 때.
- 41) 규문(閨門) : 부녀자들만의 공간.
- 42) 혼정신성(昏定晨省) :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
- 43) 봉제사(奉祭祀) : 조상의 제사를 모심.
- 44) 접빈객(接賓客) : 손님을 맞이함.
- 45) 치성(致誠) : 정성을 다함.
- 46) 발명(發明) : 죄나 잘못이 없음을 말하여 밝힘.
- 47) 실체(失體) : 체면이나 면목을 잃음.
- 48) 남노여비(男奴女婢) : 사내종과 계집종.
- 49) 온의(溫意) : 따뜻한 뜻.
- 50) 범백체모(凡百體貌) : 갖가지 체면이나 몸가짐.
- 51) 사사(事事)이 : 일마다.
- 52) 왕후명부(王后命婦) : 왕후에게 봉작(封爵)을 받은 부인.
- 53) 직임조순(織紵組紃) : 비단명주를 직조하고 실을 짚음.
- 54) 잠농(蠶農) : 누에농사.
- 55) 갈담시(葛覃詩) : 『시경』에 나오는 시편으로 천자의 후비로서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온후한 덕을 찬양한 노래.
- 56) 빈풍칠월(豳風七月) : 『시경』에 나오는 시편으로 주공(周公)이 지은 시. 농사를 장려하여 부강을 일삼은 후직(后稷)의 일을 펴서 성왕(成王)으로 하여금 잊지 말도록 이 노래를 불렀다 함.
- 57) 위공자상(爲公子裳) : 공자를 위해 옷을 지음.
- 58) 규규갈구(糾糾葛履) : 『시경』에 나오는 시편으로 엉킨 칩으로 만든 신발.
- 59) 호인복(好人服) : 집안 어른이 입을 옷.
- 60) 의혼(議婚) : 혼사를 의논함.
- 61) 육례(六禮) :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혼인의 여섯 가지 예법. 납채, 문명(問名), 납길, 납폐, 청기(請期), 친영을 이룸
- 62) 여가(餘暇) : 여유. 틈.

- 63) 치산(治産) : 집안 살림살이를 잘 돌보고 다스림.
- 64) 조석(朝夕) : 아침 저녁.
- 65) 지량 : 간장.
- 66) 요량(料量) : 앞일을 잘 헤아려 생각함.
- 67) 도포창의(道袍褱衣) : 평상시 예복으로 입던 겉옷.
- 68) 방도(方道) : 어떤 일을 하거나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한 방법과 도리
- 69) 변통성(變通性) : 형편과 경우에 따라서 일을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이나 능력.
- 70) 총복(充腹) : 음식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아니하고 고픈 배를 채움.
- 71) 위격(位格) : 지위와 품위.
- 72) 칭탁(稱託) : 사정이 어떠하다고 핑계를 댈.
- 73) 뜯적이며 : 뜯고 부비며.
- 74) 강작(強作) : 억지로 함.
- 75) 마구(馬廐) : 마굿간.
- 76) 용심 : 남을 시기하여 심술궂은 마음.
  - 1) 부자유친(父子有親) :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리는 친애에 있음을 이룸.
  - 2) 부생모육(父生母育) : 부모가 낳고 기름.
  - 3) 호천망극(昊天罔極) : 아버지의 은혜가 넓고 큰 하늘과 같이 다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
  - 4) 순(舜)임금 : 중국 태고(太古)의 천자 '순(舜)'을 임금으로 받들어 이르는 말.
  - 5) 역산(曆山) : 순임금이 갈았던 밭이 있는 산이름.
  - 6) 자로(子路) :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의 유학자. 공자의 제자로 십철(十哲)의 한 사람으로 정사(政事)에 뛰어났으며 공자를 제일 잘 섬겼다고 함.
  - 7) 부미(負米) : 쌀을 짊어짐.
  - 8) 노래자(老萊子) :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의 학자. 70세에 어린아이 옷을 입고 어린애 장난을 하여 늙은 부모를 위안하였다고 함.
  - 9) 왕상(王祥) : 중국 삼국시대 서진(西晉) 사람으로 24효에 해당되는 인물. 효성이 지극하여 계모 주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극진히 모셨다고 함.
  - 10) 축수(祝手) : 두 손바닥을 마주 대고 빚.
- 77) 투기(妬忌) :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異性)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
- 78) 현철(賢哲) : 어질고 사리에 밝음.
  - 11) 맹종(孟宗) :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사람. 효자로서 이름이 높았으며, 겨울에 그의 어머니가 즐기는 죽순이 없음을 슬퍼하자 홀연히 눈 속에서 죽순이 나왔다고 함.
  - 12) 구완 : 아픈 사람이나 해산한 사람을 간호함.
  - 13) 황향(黃香) :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에 나오는 인물로 효성이 극진하여 여름에는 아버지의 베개에 부채질을 하였다고 함.
  - 14) 하절(夏節) : 여름.
  - 15) 육적(陸積) :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때 사람. 육적이 6살 때, 구강에서 원술을 뱉었다. 원술이 굴을 내왔는데, 육적은 그 중 셋을 품었다. 육적이 떠날 때, 원술에게 배례를 하다 굴을 땅에 떨어트렸다. 원

술이 “육량은 손님으로 왔으면서 왜 꿀을 품었지?”라고 묻자, 육적은 “돌아가서 어머니께 드리고자 하였습시다.”하고 대답했다. 원술은 이 대답을 듣고 기이히 여겼다고 함.

16) 유자(柚子) : 유자나무의 열매.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